금속투쟁속보 7호

발행일 2025년 2월 3일(월) ❙ **발행인** 장창열 ❙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윤석열 파면을 시작으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금속노조, 2025년 투쟁선포식 열어 … 노동법 전면 개정 촉구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5년 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025년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지부·지회 확대 간부 3천여 명이 참석해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 세력 청산 ▲윤석열 노동정책 폐기 등을 외쳤다. 노조법 2·3조 등 노동법 전면 개정도 촉구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탓에 한국 민주주의가 큰 상처를 입었다”라며 “윤석열 파면은 물론이고 내란 잔당 ‘국민의 힘’과 김문수 노동부 장관, 뉴라이트 같은 반노동·내란 세력의 청산이 시급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년 금속노조는 노조법 2·3조 등 노동법 전면 개정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장창열 위원장은 “천박한 자본의 천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온전히 권리 행사하고 보호받는 사회가 필요하다”라며 “윤석열 파면을 시작으로 금속노조는 노동 중심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리어코리아지회,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 등 2곳 신규사업장 대표자가 무대에 올라 집회 참가자들에게 사업장 상황을 소개했다.

전동훈 경주지부 리어코리아지회장은 “경주지부와 2년여 준비 과정을 거쳐 2024년 3월 지회를 설립했다. 첫 단체교섭도 맺었다”라며 “현장 동료들이 요즘 출근할 맛 난다고 말해줄 때면 노동조합 만들기 잘했구나, 금속노조 하기 정말 잘했다 싶다”라고 말했다. 전동훈 리어코리아지회장은 “노조 가입 상담부터 지금까지 큰 도움을 준 경주지부와 지역 동지들 덕분”이라며 “리어코리아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서 얻은 자신감을 투쟁사업장처럼 연대가 필요한 동지들에게 꼭 전달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원우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장은 신성자동차 사측의 노동 탄압을 알렸다. 신성자동차는 광주지역 메르세데스 벤츠 딜러사다. 김원우 지회장은 “신성자동차 사측은 노동자 대부분을 특수고용직으로 만들어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4대 보험 가입도 없다”라며 “장시간 노동, 저

임금, 노동착취, 괴롭힘으로도 부족한지 사측은 노조 탄압도 서슴지 않는다” 라고 토로했다. 김 지회장은 “노동조합을 통해 더 뭉치고 힘을 키워 사측에 안전한 노동 환경, 인간다운 삶을 당당히 요구하겠다” 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도 마이크를 잡았다. 양경수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언제나 민주노총 투쟁 선봉이다. 노조법 개정 쟁취, 타임오프·회계 공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2025년에도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하자” 라고 독려했다.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뒷짐 지고 있는 한화오션 원청 탓에 2024년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지회는 투쟁선포식 날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 농성 71일, 서울 한화 본사 앞 농성 16일 차를 맞았다. 김형수 지회장은 본사 농성 투쟁에 함께하는 시민들과 무대에 올라 지회 상황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했다.

금속노조는 투쟁선포식을 마친 다음,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로 행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내란잔당 국민의 힘’ 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고 “국민의 힘 해체” 를 외쳤다.



전국금속노동조합 152차 중앙위원회

소집공고

금속노조 규약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152차 중앙위원회를 소집합니다.

- 아래 -

□ 일시 : 2025년 2월 10일(월) 14시
□ 장소 : 서울,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안건
안건1. 조합 사무처 ○○○ 징계 재심 건
안건2. 제명 조합원 복권 건
안건3. 각종 기금 지출 승인 건
안건4. 조합비 납부 관련 건
안건5. 일반자산 폐기 건
안건6. 규정 개정 건
안건7. 2025년 전략조직사업 계획 및 예산 건
안건8. 단양청소년수련원 운영체계 개선 건
안건9. 59차 정기대의원대회 안건 심의 건
※ 안건은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장창열